

## [수도권 주요 뉴스] 임진강 평화누리길 걷기행사

[CBS노컷뉴스 김양수 기자]



](사진=자료사진) ◇임진강 생태탐방로에서 올해 첫 평화누리길 걷기행사

경기도가 파주시 등과 함께 다음 달 30일 임진강 생태탐방로에서 올해 첫 '평화누리길 걷기 행사'를 합니다.

이번 걷기 행사는 45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울곡습지공원~장산전망대~화석정 구간을 왕복하는 것으로 9.1km 길이의 임진강 생태탐방로 트레킹 코스에서 열립니다.

참가자들은 철조망 너머 임진강의 풍경을 감상하고 장산전망대에 올라 개성시, 송악산, 장군봉 등 북녘땅을 조망할 수 있으며 소원 적기, 평화기원 종이꽃 달기 등도 즐길 수 있습니다.

## 임진강 생태탐방로에서 올해 첫 '평화누리길 걷기행사'

[KFM 경기방송 = 박상욱 기자] 경기도는 파주시,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다음 달 30일 임진강 생태탐방로에서 올해 첫 '평화누리길 걷기행사'를 합니다.

이번 걷기 행사는 45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울곡습지공원~장산전망대~화석정 구간을 왕복하는 9.1km 임진강 생태탐방로 트레킹 코스에서 열립니다.

참가자들은 철조망 너머로 임진강의 풍경을 감상하고, 장산전망대에 올라 개성시, 송악산, 장군봉 등 북한을 조망할 수 있으며, 소원 적기, 평화기원 종이꽃 달기 등 다양한 행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.

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내일부터 평화누리길 걷기대회 공식 홈페이지([www.walkyourdmz.com](http://www.walkyourdmz.com))로 신청하면 됩니다.

참가비는 만5천원으로, 비무장지대 환경보전기금으로 일부 적립됩니다.

박상욱 kfmbodo@kfm.co.kr 수도권의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.9MHz

# 경기신문

## 철책선 사이로 봄을 함께 걸어요

道·파주 '평화누리길 걷기행사'  
오늘부터 홈페이지 선착순 모집

경기도와 파주시, 경기관광공사가 다음 달 30일 파주시 융곡습지공원 생태탐방로 일원에서 '평화누리길 걷기행사'를

연다.

이번 행사는 융곡습지공원을 출발해 생태탐방로를 지나 장산전망대, 화석정을 거쳐 다시 융곡습지공원으로 돌아오는 9km의 순환형 코스다.

철책선 사이로 흐르는 임진강의 봄 풍경과 장산전망대에 올라 개성시와 송악

산, 장군봉 등을 감상 할 수 있다.

생태탐방로는 군사작전구역으로 군 경계병들만이 순찰로로 이용, 민간인 출입이 통제됐었다.

이날 연계 행사로는 '평화누리 종주투어'의 홍보대사인 영화배우 이광기와 박원희 학생이 동행한다.

박원희 학생은 발달장애를 극복하고 지난해 평화누리길 전체 12코스(19km)를 완주해 훌륭한 감동을 준 바 있다.

2016년 03월 31일 (목)  
02면 종합

또 단순 걷기에 의미를 더해 참가자들이 이 걸을 때마다 일정금액이 비무장지대 (DMZ)보전기금으로 적립되며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 참가자의 경우 사전신청자에 한해 환경정화활동을 통한 봉사활동 3시간이 인정된다.

참가신청은 이달 31일부터 공식홈페이지([www.walkyourdmz.com](http://www.walkyourdmz.com))에서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1천명 모집에 참가비는 1만5천원이다.

/충성민기자 hsm@

23.8 X 4.9 cm

# 기호일보

2016년 03월 31일 (목)  
02A면 종합

## DMZ 주변 돌아보며 봄 느껴볼까

내달 평화누리길 걷기 행사  
울곡습지공원 주변 9km 코스  
오늘부터 홈페이지 신청 접수

경기도는 다음 달 30일 파주시 융곡습지공원 생태탐방로에서 올해 첫 '평화누리길 걷기행사'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.

이번 행사는 융곡습지공원을 출발해 생태탐방로와 장산전망대, 화석정을 거쳐 다시 융곡습지공원으로 들어오는 9km의 순환형 코스로 구성됐다.

참가자들은 그동안 군사작전구역으로 통제돼 쉽게 오갈 수 없었던 생태탐방로를 걸으며 임진강의 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. 또 장산전망대에 올라 개성시, 송악산, 장군봉 등 북한을 조망할 수 있다.

이날 행사에는 소원이 적힌 종이 전시하기, 철책에 대형 종이꽃 달기,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. 특히, 평화누리길 종주투어 홍보대사 배우 이광기 씨, 장애인으로 지난해 평화누리길 전체 12

개 코스 191km를 완주한 박원희 학생도 함께 걷는다.

참가비의 일부는 DMZ 일대 환경보존 캠페인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며, 학생은 사전 신청자에 한해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, 봉사활동 3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.

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31일부터 평화누리길 걷기대회 공식 홈페이지(<http://www.walkyourdmz.com>)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. 참가비는 1만5천 원이다.

신기호 기자 skh@kihoilbo.co.kr

14.8 X 10.0 cm